

“중국 강타 ‘태양의 후예’ 이을 스토리 찾아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북경서

K-Story in China 행사 성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스토리를 발굴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처럼 중국시장에서 통할만한 '좋은 스토리'를 찾는 중국 콘텐츠 업계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원장 송성각)은 지난달 31일 중국 북경 메리어트호텔에서 K-스토리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K-Story in China(스토리 피칭)'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이날 8일 밝혔다.

한진진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완성 콘텐츠 위주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에서 벗어나 공동제작, 투자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전개될 것"으로 밝게 전망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K-Story in China'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 웹툰 등 국내 원천 스토리를 중국의 드라마·영화 제작사 및 투자사 등에 소개하는 프로젝트 피칭 행사로, 피칭 후에는 판권 수출 또는 공동제작 등의 방식을 통해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1:1 비즈니스 상담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요구투어, 화책미디어, 알리버피쳐스 등 중국 120여 개 콘텐츠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280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지난 2014년 첫 행사를 통해서는 영화 '블라인드'의 한중 합작 리메이크 제작이 성사됐으며, 영화 개봉 이후에는 1억 2천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한편 지난해 행사에서는 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구독하고 중국에서는 웹툰 플



중국시장에서 통할만한 '좋은 스토리'를 찾는 중국 콘텐츠업계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랫폼 '유오차(U17)' 연재를 통해 단 10회 만에 100만 명이 넘는 독자를 사로잡은 국내 웹툰 <꽃미남 어린이>가 중국 최대 민영 제작사 중 하나인 Enlight Media(광선미디어)와 영상화 및 출판 관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는 ▲KBS 드라마 '오! 마이 비너스' ▲영화 '블라인드' 제작사 문외차의 차기작 '범추지마' ▲'출출한 여자'를 통해 중국 웹드라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기린제작사의 후속작 <출출한 여자> 등 모두 10개 작품이 중국 콘텐츠 관계자들에

게 선보였다. 이 중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대한민국 스토리 공모대전 우수작으로 선정됐던 유선동 작가의 <도둑맞은 책>이 중국 영화제작사이자 투자배급사인 보나필름(Bona Film)을 비롯해 30개가 넘는 현지 콘텐츠기업들로부터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아 앞으로의 성과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중국 최대 동영상 플랫폼인 '유쿠(酷)'와 드라마제작사인 상해크롬미디어 등 1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은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예뻐지는 10대 소녀의 이야기

를 다른 국내 웹툰 <뷰티풀 라이어>의 판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으며, 이 가운데 2~3곳의 업체와는 관련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마쳐 곧 계약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 강한 다섯 가족의 좌충우돌 여행을 다룬 로드무비 <가족여행>의 경우, 알리바바그룹 계열의 영화제작사 알리버피쳐스와 투자사인 파니브릿지인베스트먼트에서 스토리의 영상화 관련 구매의사를 밝히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 중에 있다.

봄의 전령 매화, 경기전에 그림으로 피어나다

어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여점 작품 전시

매화도 한철이라고 꽃잎은 분분이 흩어졌다. 하지만 어진박물관에 전시된 그림 속 매화는 이제 한창이다. 이곳을 찾은 상춘객들은 시간을 거슬러 회춘한 이른 봄 매화 그림과 마주할 수 있다. 경기전 매화꽃을 보셨는지요?가 어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오는 6월 26일까지. 이번 특별전에는 소치 허유의 매화도, 황영두의 일지매, 인두로 지저 그린 인두화 매화 등 2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 중 허유는 조선말 남종화의 대가로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다. 김정희는 그에 대해 “화법이 매우 아

름다우며 우리 고유의 습성을 타파하여 압록강 이동에서 그에 겨룰 이가 없다.”고 극찬했다. 그림 외에 경기전 매화 사진도 만나볼 수 있다. 매화는 경기전의 대표 꽃으로 경기전 정전 동편에서 자생한다. 그 중 백색의 꽃잎 15점이 겹쳐 피는 겹침매는 줄기가 누워 구부러져 자라는 외풍매로 마치 용이 비상하는 것처럼 하늘로 오르다가 다시 땅을 치고 솟구치는 형상을 하고 있어 ‘용매’라고도 불린다. 이동희 어진박물관장은 이번 전시 관람을 통해 “매화를 탐한 이들의 고매한 정신과 매화의 고결한 아름다움을 느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은 기자



소치 허유의 매화도

군산촬영 영화로 전국 홍보

군산시가 군산을 배경으로 촬영된 영화를 모아 영상으로 제작해 군산시를 전국에 알리는 이색적인 홍보에 나선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는 7월 영상을 제작해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여행사업'의 프로그램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요 영화촬영지에 스크린 등 영상시설을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군산의 역사와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산지역에서 촬영된 영화는 1948년 이만홍 감독의 <꽃어린 향로>를 시작으로 <장군의 아들>, <8월의 크리스마스>, <남자가 사랑할 때> 등 약 104편이 제작됐다. 주요 촬영지로는 '히로스가옥, 초원사건관 등 근대역사경관지구와 경양동 철길마을 군산항 등이다. 김봉근 문화예술과장은 “군산의 풍부한 영화 문화자원은 지역민의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전국 최고의 근대문화 관광도시 군산건설에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영상제작으로 군산에 대한 관심증가를 도모해 관광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현대차 전주공장 어린이화가 지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이 미래의 한국 화단을 이끌어 나갈 어린 화가 육성 지원사업에 나선다. 어려운 가정 환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갖기 힘든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비슬로 배우는 Dream Together' 사업에 나선 것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8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본부(본부장 구미희), 갤러리 누벨 백(관장 최영희)과 함께 미술교육 지원 사업 협약을 맺고, 미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재능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 효자동 소재 갤러리 누벨 백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미술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회공헌기금 800만원을 전달했으며, 초록우산과 갤러리 누벨 백은 대상자 선별 및 미술교육 진행 전담을 책임지기로 했다. '미술로 배우는 Dream Together' 사업은 업신된 미술강사들의 세심한 지도 아래 미술에 관심이 많은 전북지역 소외계층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향후 9개월 간 매월 4차례씩 진행될 예정이다. /원주=이중복기자

전주세계소리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는 축제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로 활약할 소리천사 300여명을 오는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사전교육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로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로서 열정과 의지, 성실성을 종합 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소리천사는 축제시작 전날인 9월 28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하며 이들에게 유니폼과 가방 할인혜택이 있는 ID카드와 매뉴얼 북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소리천사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혜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티켓예매 시작

한편당 1인 4매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티켓예매가 시작된다. 개막식 예매는 오는 12일 오후 2시부터, 상영작과 폐막식 예매는 14일 오전 11시부터 각기 진행된다. 예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영화 한 편당 1인 4매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예매는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현장예매는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의 거리 내 옥포주차장에 조성될 전주라운지*와 CGV전주교사, 메가박스 전주점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서포터즈라운지(지프 서포터즈 회원 전용)에서 하면 된다. 관람가격은 개막식·미드 나잇 인 시네마·마스터 클래스는 1만 2000원 이고 일반상영작·아외상영작·토크 클래스는 6000원이다. 지프 서포터즈(전주국제영화제 멤버십 제도) 회원이 티켓예매를 하면 개막식과 심상영영은 2000원씩, 일반상영과 아외상영은 1000원씩 할인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전주시 및 전주 지역 내 대학 재학생을 위한 아외상영작 할인혜택도 있다. 이는 현장예매 시에만 가능하며 본인 포함 2인까지 50%할인 된다. 여기에 단체관람 및 휠체어 사용 사전예약 관람객을 위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5월 7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폐막식 행사의 입장권은 무료로 4월 14일에 티켓을 예매한 후 입장 가능하다. /정혜은 기자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slab.com/
<2016년 4월 11일>

<p>▷쥐띠</p> <p>46년생: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바꾸면 길하다.</p> <p>60년생: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이다.</p> <p>72년생: 금전운이 좋지 못하니 투자나 투기는 삼가고 베푸는 것이 실책.</p> <p>84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부지런히 움직여라.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p>	<p>▷소띠</p> <p>46년생: 금전적으로 이익이 따르는 좋은 운이다.</p> <p>61년생: 자손으로 인한 경사가 따르는 운이니 기쁨이 가득 하겠다.</p> <p>73년생: 자신의 의중을 지나치게 노출하지 마라. 후회할 일이 생긴다.</p> <p>85년생: 저가 지나간 후에 손드는 적이니 매사 부지런히 움직여라.</p>	<p>▷호랑이띠</p> <p>50년생: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울에는 뜻이 맞지 않으나 나중에는 잘 풀릴 것이다.</p> <p>62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인해 일이 해결되는 좋은 운이다.</p> <p>74년생: 어려움이 있다면 상급자의 도움을 받아라.</p> <p>86년생: 일의 능률이 상승되니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좋은 결과.</p>	<p>▷토끼띠</p> <p>56년생: 애처로움에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p> <p>68년생: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에도 좋으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면 더욱 소통이 잘 되는 운이다.</p> <p>75년생: 상대의 모진 말이 오히려 도움이 되니 귀문 기운이라.</p> <p>87년생: 감정이 고조되는 운.</p>
<p>▷용띠</p> <p>52년생: 배반당할 좋은 일이 생기는 운으로 욕심은 금물이다.</p> <p>64년생: 높은 산에 태양이 떠오르는 운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p> <p>76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운이다.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라.</p> <p>88년생: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니 타인과의 관계에도 조심해야.</p>	<p>▷범띠</p> <p>33년생: 물리에서 심신을 안정시키고 현재를 잘 지켜라.</p> <p>65년생: 근본을 잘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잡으면 사람으로 인해 일이 성사될 것이다.</p> <p>77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생기니 불필요한 일은 삼가라.</p> <p>89년생: 금전이 잠시 줄어들고 다시 나갈 운이니 금전관리에 유의하라.</p>	<p>▷말띠</p> <p>54년생: 계획을 하거나 한발짝 움직이기 좋은 운이다.</p> <p>66년생: 어려움이 생기면 잠시 쉬어가는 것도 해딜 수 있다.</p> <p>78년생: 약속했던 일에도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운이다.</p> <p>90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자신이 행동한 결과이니 미리 방지하라.</p>	<p>▷양띠</p> <p>56년생: 권위에 등을 보이면 어려움이 있어도 심대병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겠다.</p> <p>67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p> <p>79년생: 남성은 여성의 도움을 받으면 일이 쉽게 풀리는 운이다.</p> <p>91년생: 식욕이 좋은 운이니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p>
<p>▷원숭이띠</p> <p>56년생: 화근이 되는 것은 초기에 막아야 하는 법. 적은 일도 그냥 넘기지 마라.</p> <p>68년생: 타인과의 화합도 좋고 재물운도 좋으니 편안한 운세다.</p> <p>80년생: 몸의 컨디션이 좋지 못하니 무리가 되는 일은 삼가라.</p> <p>92년생: 타인에게 영혼을 공명하게 하라.</p>	<p>▷닭띠</p> <p>57년생: 지나간 일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p> <p>69년생: 금전운이 점차 좋아지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전진하라.</p> <p>81년생: 식욕이 좋은 운이니 과식을 조심하고 심장에 주의하라.</p> <p>93년생: 화합에 좋은 운이니 동지간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운.</p>	<p>▷개띠</p> <p>46년생: 때로는 적진 보다는 물이기는 것이 좋을 때가 있는 법이다.</p> <p>58년생: 자신의 것이 아닌 것에 욕심을 부리지 마라. 탐욕은 화를 부른다.</p> <p>70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점심시간을 활용하라.</p> <p>82년생: 아작은 운이 체되어 있으니 좀 더 준비하고 진행하라.</p>	<p>▷돼지띠</p> <p>47년생: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하는 때. 시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p> <p>59년생: 금전운이 좋아진다 지출한 만큼 서서히 채워질 것이다.</p> <p>71년생: 식욕이 있는 운이니 소화가 계통이 좋지 않으니 과식은 삼가라.</p> <p>83년생: 운이 막혀 있는 상황.</p>